

5.12 상반기 지방직 <국어> 기출해설(A책형)

해설 : 이선재 교수

문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 ① 목호 Muko
- ② 극락전 Geuknakjeon
- ③ 경포대 Gyeongphodae
- ④ 평창 Pyeongchang

정답 : ④ / 선재국어 1권 366쪽

<오답풀이>

- ① 목호 Mukho : 로마자 표기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의 예외항이다. 체언에서 ‘ㄱ, ㄷ, ㅂ’ 다음에 ‘ㅎ’이 오면 ‘h’를 넣어서 적는다.
- ② 극락전 Geungnakjeon : 자음동화는 인정하고 된소리되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경포대 Gyeongpodae : ‘ㅍ’은 ‘p’로 적고, 붙임표는 쓰지 않는다.

문 2. 밑줄 친 표현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민주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지양(止揚)한다.
- ②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도매급(都賣級)으로 욕을 먹었다.
- ③ 그 회사는 사건의 진상을 호도(糊塗)하려고 한다.
- ④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享年) 80세이신데도 정정하시다.

정답 : ③ / 선재국어 4권 1585쪽

<해설>

‘호도(糊塗)’란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문맥상 적절하게 쓰인 표현이다.

<오답풀이>

- ① ‘지양(止揚)’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긍정적 가치이기 때문에 ‘지향(志向: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을 써야 한다.
- ② ‘도매급(都賣金)’이 옳은 표기이다. ‘도매금’이란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향년(享年)’이란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를 말한다.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쓴다.
예) 향년 83세를 일기(一期)로 별세하다.

문 3. 외래어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이팅
- ② 슈퍼마켓
- ③ 꼬냑
- ④ 팸플릿

정답:③ / 선재국어 1권 373쪽

<해설>

‘코냑(<프>cognac)’으로 써야 한다. 외래어 표기는 원지음의 발음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문 4.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추위를 무릎쓰고 밖에 나가셨다.
- ②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 ③ 그가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 ④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렸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정답:② / 선재국어 1권 239쪽

<해설>

‘들르다’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는 뜻으로, ‘들르다 - 들러 - 들러라’로 활용하는 ‘-’ 탈락 동사이다. ‘들리다’와 혼동하여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풀이>

- ① ‘무릅쓰다’가 옳은 표기이다.
- ③ 용무, 직책, 사명, 감정, 기운 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은 ‘띠다’로 쓴다. ‘띠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일을 계획하거나 차리는 의미일 때는 ‘벌이다’로 쓴다. ‘벌리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 5.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릇 四千年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율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 예술체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가 분화·독립되어 제요나 노동요 따위의 시가의 원형을 이루고 다시 이 집단적 가요는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 ① 왜냐하면 - 그리고 - 그러므로

- ② 그리고 - 왜냐하면 - 그러므로
- ③ 그러므로 - 그리고 - 왜냐하면
- ④ 왜냐하면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①

<해설>

제시문은 처음에 '시가문학'이라는 글의 핵심제재를 제시한 뒤, 문학의 중추로 시가 문학을 꼽은 이유를 설명한다. 따라서 '(왜냐하면) ~ 때문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시가문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해갔다는 내용을 나온다. 결론적으로 시가 문학의 의의를 쓰고 있으므로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문 6. 밑줄 친 표현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고향 것갈로 담가서 그런지, 이번 김치맛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야!
- ② 한참 동안 감기를 앓았다더니, 네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 ③ 이사를 하게 되자, 매일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기던 우리 사이가 조금씩 상기게 되었다.
- ④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잠궈 두었다.

정답 : ④ / 선재국어1권 238쪽

<해설>

'잠그다'는 'ㄹ'탈락 동사로, '잠그다-잠가-잠가라'의 형태로 활용한다. 따라서 '잠가'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 ① '담그다'는 'ㄹ'탈락 동사로, '담가-담가라'로 활용하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② '상큼하다'에는 까칠하고 눈이 쪽 들어가 보인다는 뜻도 있다. 예) 아파서 그런지 눈이 상큼해 보였다.
- ③ '상기다'는 '성기다'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사이가 조금 떠 있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예) 상기게/성기게 짠 광주리) 그런데 여기에는 관계가 깊지 않고 조금 서먹하다는 뜻도 있으므로, ③은 올바르게 단어를 사용한 문장이다.

문 7. 밑줄 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법 저촉(抵觸)(→ 해당) 여부를 검토하다.
- ② 국력 배양에 가일층(加一層)(→ 한층 더) 매진하다.
- ③ 그들은 대절(貸切)(→ 전세) 버스 편으로 상경했다.
- ④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買占)을(→ 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답 : ① / 선재국어 1권 59쪽 문 76번

<해설>

한자어 순화에 대한 문제이다. '저촉(抵觸: 거스를 저, 닳은 촉)'이란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이 아니라 위반이나 걸림의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가일층(加一層: 더할 가, 한 일, 층 층)'은 정도 따위를 한층 더 한다는 뜻의 부사로 쓰였다.
- ③ '대절(貸切: 빌릴 대, 꿂을 절)'은 '전세(專賃)'로 순화되었다.

④ ‘매점(買占 : 살 매, 차지할 점)’은 ‘사재기’로 순화되었다.

문 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때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 ②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 ③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 ④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제시문은 먼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제시한 뒤, ‘그러나’ 이후에 글의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이 왜 때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는 문장에서 ③의 진술은 잘못된 정보의 이해임을 알 수 있다.

문 9.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체로 술을 받친다.
- ② 요즘 영수는 수영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 ③ 이것으로 축사를 갈음합니다.
- ④ 고무줄을 더 늘이면 끊어질 것이다.

정답 : ① / 선재국어 1권 240쪽

<해설>

‘술을 받다/받치다’로 써야 한다. ‘받치다-받히다’와 함께 한글 맞춤법 57항에서 학습하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② '붙다'의 뜻이 있을 때는 '붙이다'를 쓰며, '말, 농담, 취미' 등도 이에 해당한다. '부치다'와 구별해서 써야 하는 단어이다.

③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일 경우, '갈음'을 쓴다. '가름/가늠'과 구별해서 써야 하는 단어이다.

④ 길이를 길게 할 경우는 '늘이다'를 쓴다. '늘리다'와 구별해서 써야 하는 단어이다.

문 10.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을 경제적 요소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따른 인권문제, 복지문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갈등 등이 수반된다는 말이다. 프랑스처럼 우선 급하다고 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으면 인종 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 등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나) 이제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만 다문화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

(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 이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아닌 주류층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내국인에게 증오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 ① (라) - (나) - (다) - (가)
- ② (다) - (나) - (라) - (가)
- ③ (라) - (다) - (나) - (가)
- ④ (다) - (가) - (라) - (나)

정답 : ④

제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 (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 : 좋은 인력의 선별 입국 + 이민자의 정착 및 사회 통합
- (가) 이민자를 선별하여 받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 (라) 이민자에 대한 정착 지원
- (나)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다) 단락에서 다문화 정책의 핵심으로 '선별'과 '정착 지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결론적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문 11. 밑줄 친 문장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을 지어 왔다. 그래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육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정착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수렵을 했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의 동물로 육질을 섭취했던 것이다. ㉡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먹는다. 그러나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보면, ㉢ 힌두교도들 역시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을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 이슬람, 유대교도들 또한 서유럽의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거부감이 느낄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②

<해설>

'~에 대해 ~을 느끼다'라는 문장 구조는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농경(農耕)'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므로, '농경을 지어 왔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③ ㉡처럼 '~서유럽 사람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다'라는 문장 구조로 써야 한다.
- ④ ㉣처럼 '~ 식생활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로 써야 한다.

문 12. 다음 글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린 때때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세, 제스처 등을 해석하고 반응

하는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① 글의 서론 부분
- ② 글의 결론 부분
- ③ 글의 본론 부분
- ④ 예를 드는 부분

정답:① / 선재국어 2권 607쪽

<해설>

제시문은 글감을 제시하며 앞으로 전개될 글의 주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서론 부분으로 적합하다.

문 13.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에게 진짜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어쩌면 8.15 광복이라고나 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국의 광복은 우선 내 조부를 몰락시켰다. 그의 위엄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헌 짚신 짝처럼 짓밟혔고, 근동 세 마을을 먹여 살리던 그 많던 가산들도 온통 거덜이 나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에는 ()이기는 할지언정 그의 앞에선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들지 못하던 소작인이며 하인배들에게 급기야는 가혹한 조리돌림까지 당해야 했던 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날의 수모를 삭히지 못한 채 그들이 자신의 상여 메는 것조차 유언으로 거부했던 터였다.

- 이동하, '과편' 중에서 -

- ① 곡학아세(曲學阿世)
- ② 면중복배(面從腹背)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 ④ 허장성세(虛張聲勢)

정답:② / 선재국어 4권 1598쪽

<해설>

제시문은 광복 전후로 달라진 인물의 처지를 서술하고 있다. 광복 전에 그의 위세 앞에서 마지못해 복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서술이 나오므로, '면중복배(面從腹背)'가 가장 적합하다.

*면중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오답풀이>

- ① 곡학아세(曲學阿世) :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④ 허장성세(虛張聲勢)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문 1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 살립니다.
- ② 우리 부부는 둘 다 돈을 벌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 벌므로
- ③ 그는 땀에 젖 작업복을 갈아 입었다. → 절은
- ④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밀읍시다. → 밀시다.

정답:③ / 선재국어 1권 96쪽

<해설>

‘ㄹ’ 받침을 가진 용언(살다, 벌다, 갈다, 밀다)의 활용형에 대한 문제이다. ‘ㄹ’ 받침을 가진 용언이 활용할 때는 어미 앞에 매개모음에 해당하는 ‘으’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ㄹ’ 받침은 어미 ‘ㄴ’ 앞에서 탈락한다. 따라서 ‘젖+은(X)’은 ‘젖+ㄴ →(ㄹ탈락) 전’으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②,④ : ‘ㄹ’ 받침 다음에 ‘으’를 빼고 올바르게 고친 용례들이다.

문 15.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이 일어난다. 동물의 경우, 분노를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발톱을 세우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눈매가 사나워지며 이를 짹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공격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분노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 충동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①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 ②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
- ③ 탈리오 법칙의 정의와 실제 사례
- ④ 동물과 인간의 분노 감정의 차이

정답 : ②

<해설>

글의 중심 내용은 전체의 세부 내용을 포괄하는 일반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제시문의 중심 내용(주제문)은 맨 앞의 문장인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상술하고,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문을 어구로 제시한 ②가 답이다.

문 16.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 온 말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가람’이 옛날부터 있는데도 중국에서 ‘강(江)’이 들어오더니 ‘가람’을 물리쳤고 ‘피’가 있는데도 굳이 ‘산(山)’이 그 자리에 올라 앉고 말았다. (중략)

원래 ‘외래어’란, 우리말로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 때에 마지못해 외국말에서 빌려다 쓰다가 보니 이제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학교, 선생, 비행기, 가족계획’ 등등의 무수한 한자어가 그것이며, ‘버스, 빌딩, 커피, 뉴스’ 등등 서양에서 들어온 외국어가 그것이다.

- 허웅, ‘한글과 민족문화’ 중에서 -

-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②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췌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말은 해야 맞이고 고기는 씹어야 맞이다.

정답 : ②

<해설>

제시문은 토박이 말 대신에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쓰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췌다.’는 속담이 가장 글의 내용에 어울린다.

문 17.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써 그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 ② 홍 교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대칭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 ③ 위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김 교수의 몽고에 대한 연구가 원 세조 등장 이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이다.
- ④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정답:④ / 선재국어 1권 91쪽, 406쪽 등

<해설>

주술 호응 등에서 올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오답풀이>

- ① ‘로써’는 재료, 원료, 수단, 도구 등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셈할 때 쓰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최근의 일로’로 쓰는 것이 좋다.
- ② 간접 인용일 경우는 ‘라고/하고’를 쓰지 않고 ‘-고’를 쓴다. 따라서 ‘~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로 써야 한다.
- ③ 수식하는 말은 수식 받는 말 바로 앞에 써서 의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몽고에 대한 김 교수의 연구’로 쓴다. 또한 ‘원 세조 등장 이후’라는 표현은 명사구를 중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

세조가 등장한 이후만을~' 등으로 풀어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문장은 김 교수가 진행한 연구의 특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 김 교수의 연구는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이다.'처럼, 조사를 '가'가 아닌 '는'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문 18.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학문은 나름대로 고유한 대상영역이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학문이 법학이며,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물론 그 영역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문이란 일정 대상에 관한 보편적인 기술(記述)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술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조작·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실천성만이 학문의 동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학문은 사회로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낱말은 ()입니다. 결국 학문이 어떤 대상의 기술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술하는 사람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원리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지(知)에 대한 설명도 같은 지(知)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연구자가 같은 절차를 밟아 그 기술과 주장을 재검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하고 반박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① 전문성
- ② 자의성
- ③ 정체성
- ④ 보편성

정답:④

<해설>

제시문은 ‘학문이란 일정 대상에 관한 보편적인 기술(記述)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한정된 뒤, 원리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보편성’이다.

문 19. 다음을 하나의 단락으로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해 나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은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고 있다.
 ㉡ 올 겨울 주남 저수지에는 약 1만여 마리의 백조가 유유히 헤엄치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 보통 때엔 목을 S자로 굽히지만, 경계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목을 곧게 세우고 한 곳으로 모여든다. ㉣ 주남 저수지에는 왜가리와 큰 기러기가 상당히 있으며, 희귀종으로 알려진 재두루미도 12마리나 날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백조가 한 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등과 깃털 사이에 넣고 잠을 자기도 하고, 긴 목을 물속 깊숙이 넣고 수초의 뿌리를 먹는 모습이 재미있다. ㉥ 날개를 무겁게 퍼덕거리며 발로 차듯 뛰어가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 ① ㉡에는 ‘경계할 만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줘야겠어.
- ② ㉣은 단락 전체의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해야 되겠어.
- ③ ㉤은 ㉠과 의미가 중복되니까 빼는 게 좋겠어.
- ④ 백조가 저수지를 떠난 뒤의 풍경을 묘사한 문장을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어.

정답:② / 선재국어 2권 557쪽 9번 문제와 지문 동일, 유형 일치
 <해설>

올바른 단락은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제시문의 중심 내용은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의 우아한 기품’이다. 따라서 모든 세부 내용이 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은 주남 저수지에 있는 조류의 종류를 쓰고 있어 글의 통일성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한다.

문 20.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秦) 나라 재상인 상양(商鞅)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한 상양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았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榜文)을 붙였지요.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서는 백금(百金)을 하사한다.”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萬金)으로 인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밀질 것도 없었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① 신뢰의 중요성
- ② 부국강병의 가치
- ③ 우민화 정책의 폐해
- ④ 명분을 내세운 정치의 효과

정답:①

<해설>

사례를 일반화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예화는 진 나라 재상이 '방문에 적힌 대로 상금을 하사' 하였더니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랐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신뢰를 화제어로 내세운 ①이 답이다.